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영향 요인

김혜정*

초 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제7차 조사와 2008년 제2차 조사를 활용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자녀 가치관, 부부생활 가치관, 가족 내 성역할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의 가족가치관은 전반적으로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 혼인상태, 학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이며 보다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생활 가치관에서는 60대 이상, 기혼, 중학교 이하 학력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2008년과 2018년의 변화를 통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에서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 지속적인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젠더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부산만의 문제인지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 및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부산지역 가족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모색할 것인지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가치관,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성역할, 영향 요인, 가족, 부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hjkim@bwf.re.kr)

I. 문제제기

가족가치관은 가족제도 뿐 아니라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한다(김승권, 2014).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요소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가치관은 매우 강하게 작동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다. 한국사회 가족은 규모의 축소, 세대구성의 단순화, 형태의 다양화 등 전통적 가족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김혜정, 2019).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동질적으로 유지되었던 결혼과 자녀, 돌봄 등에 관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개인과 가족이 각자 처한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강유진, 2016).

가치관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그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기준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부산은 가족분야 62.4점, 전체 11위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부산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가치관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아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가족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도 더딘 측면이 있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지역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부산 지역 가족의 변화를 비롯한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가늠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의 전반적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008년과 2018년 가족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가족가치관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족 신념체계를 확인하는 지표로 가족제도 뿐만 아니라 결혼, 동거, 이혼, 성역할, 출산, 자녀 양육, 부모 부양, 가족주의, 효 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다루고 있으며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이자 사회적 행동의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강성률·임성옥, 2014; 김승권, 2014). 다시 말해, 가족가치관이란 가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포괄적 태도나 관점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가치관은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의미를 지니며, 대체로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를 가족가치관의 하위요소로 포괄하고 있다(배문조·박세정, 2013).

가족가치관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가족가치관을 출산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연구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로는 강유진(2016), 김민지·전미경(2016), 김승권(2014), 오영은·추주희(202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양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의 흐름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강유진(2016)의 연구를 통해서는 성역할태도, 부양관은 예전에 비해 보다 비전통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결혼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민지·전미경(2016)의 연구는 가정의 달에 보도되는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가치관의 양상과 변화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유교적·가부장적인 가족가치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전의 가족가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양상으로의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현대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김민지·전미경, 2016)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가족의 변화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김승권(2014)의 연구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분석하여 미혼자와 여성이 기혼자와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혼에 대한 인식은 기혼남녀 모두 과거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더 강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오영은·추주희(2020)의 연구는 결혼과 자녀,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성역할 태도와 인식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에서 자발적 비혼률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감소하였고 가

사 및 신혼집 마련에 대해 평등분담, 일 우선주의는 감소하고, 가족 우선주의는 증가하였다(오영은·추주희, 2020).

두 번째,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는 류연구·김영미(2013), 원숙연·김예슬(2017), 이정윤·김주현(2020), 정순돌·배은경·최혜지(2012) 등이 있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대, 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외에도 거주지역, 교육수준, 생활수준이나 가족형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원숙연·김예슬(2017)의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비도시 지역 거주자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는 비도시 및 농촌 지역은 인구 구성에 있어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새로운 가치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원숙연·김예슬, 2017). 류연구·김영미(2013)의 연구 역시 남성으로부터의 소득기여분이 낮을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정윤·김주현(2020)의 연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가구소득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소득 기여가 높을 경우 전통적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순돌·배은경·최혜지(2012)의 연구는 가족의식 중 부양의식과 성역할인식에 대한 청년, 중년, 노년층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의식을 4개로 유형화하여 각 가치관 유형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청년과 중년세대는 ‘전통-평등형’, 노년세대는 ‘자유-보수형’과 ‘전통-보수형’이 대다수로 나타나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정순돌·배은경·최혜지, 2012).

세 번째,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출산과 연결하는 연구도 증가하였다. 배혜원(2017)의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함께 결혼·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주혼인·주출산연령군은 25~29세에서 30~34세로 고연령화 되었고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출산 지연, 소자녀관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배혜원, 2017). 정아름(2018)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으로 비롯된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중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기의 양부모 가정의 동거 경험, 보통 수준의 경제적 형편, 평범한 부모의 양육태도, 1명 이상의 형제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아름, 2018). 염주희 외(2012)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가정환경 요소가 성인 남녀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기 부

모와의 동거경험, 경제적 형편, 부모와의 친밀도와 양육태도는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염주희 외, 2012)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와 2008년 제2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중 부산지역 케이스만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08년 부산지역 사례는 679 케이스이며 2018년의 경우 790 케이스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중 가족가치관 변화를 측정한 문항은 결혼가치관 관련 문항 14개, 가족 내 역할과 관련한 문항 8개, 가족부양과 관련한 문항 4개, 성역할과 관련한 문항 7개가 있다. 이중 2008년 2차 조사와 2018년 7차 조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문항만 선별하여 결혼가치관 관련 문항 9개, 가족 내 역할과 관련한 문항 6개 총 1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15개 문항은 다시 결혼과 관련한 문항과 자녀와 관련한 문항, 부부생활과 관련한 문항, 가족 내 성역할과 관련한 문항으로 나누었다. 이를 결혼가치관, 자녀 가치관, 부부생활 가치관, 가족 내 성역할의 4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 문항의 평균과 세부문항을 각각 비교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긍정문과 부정문이 함께 섞여 있어 점수에 따른 해석이 상이해 *표시한 문항의 경우 응답을 역으로 재코딩하여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표 1〉 가족가치관 영역 및 문항

구분	질문 항목	응답 변수
결혼 가치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자녀 가치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부부생활 가치관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가족 내 역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주 : *문항은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조사대상의 특성과 가족가치관 양상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빈도분석을 사용했으며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과 2018년 각각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 2008년과 2018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과 혼인상태, 학력, 경제적 형편,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였으나 경제적 형편과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의 양육태도의 경우 응답 케이스가 적거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과 학력, 혼인상태만을 주요한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특성은 연령과 혼인상태, 학력으로 나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40대 28.1%, 30대 26.2%, 50대 21.6%, 20대 이하 12.5%, 60대 이상 9.6%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 50대 25.7%, 60대 이상 26.2%, 40대 22.2%, 20대 이하 14.4%, 30대 9.9%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의 경우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기혼 75.7%, 미혼 16.6%, 이혼 및 별거 3.8%, 사별 3.8%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 기혼 67.2%, 미혼 21.6%, 사별 7.0%, 이혼 및 별거 4.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 38.6%, 고등학교 36.2%, 중학교 이하 23.9%, 대학원 이상 1.3%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 44.7%, 고등학교 31.6%, 중학교 이하 22.0%, 대학원 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18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79	100.0	790	100.0
연령	20대 이하	98	14.4	127	16.1
	30대	178	26.2	78	9.9
	40대	191	28.1	175	22.2
	50대	147	21.6	203	25.7
	60대 이상	65	9.6	207	26.2
학력	중학교 이하	162	23.9	174	22.0

구분		2008년		2018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등학교	246	36.2	250	31.6
	전문대 및 대학	262	38.6	353	44.7
	대학원 이상	9	1.3	13	1.6
혼인상태	미혼	113	16.6	171	21.6
	기혼	514	75.7	531	67.2
	이혼 및 별거	26	3.8	33	4.2
	사별	26	3.8	55	7.0

2. 부산지역 결혼가치관 변화 및 요인

부산지역 결혼가치관의 변화는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의 평균인 결혼가치관은 2008년 2.36점에서 2018년 2.50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항별로는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 2.01점에서 2018년 2.43점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18년 모두 연령과 학력,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가장 높고 사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2008년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은 반면, 2018년의 경우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요인의 세부 항목별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2008년 2.10점에서 2018년 2.44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2008년 2.61점에서 2018년 2.81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별거 및 이혼, 사별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경우 2008년 2.08점에서 2018년 2.31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 대학원 이

상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2008년과 2018년 10년간 50대와 미혼,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결혼가치관 변화 및 요인

(단위 : 점)

구분		결혼가치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전체		2.36	2.50	-4.52***	2.41	2.45	-1.11	2.01	2.43	-11.15***	2.66	2.61	1.12
연령	20대 이하	2.60	2.77	-2.303*	2.62	2.74	-1.238	2.20	2.72	-5.336***	2.97	2.86	1.220
	30대	2.48	2.68	-2.859**	2.63	2.63	0.010	2.06	2.56	-5.138***	2.76	2.86	-0.983
	40대	2.44	2.54	-1.845	2.54	2.53	0.163	2.05	2.50	-6.197***	2.72	2.59	1.544
	50대	2.10	2.44	-5.769***	2.01	2.43	-5.163***	1.86	2.34	-6.972***	2.42	2.55	-1.538***
	60대 이상	2.03	2.28	-2.890**	1.98	2.17	-1.857	1.85	2.22	-3.656***	2.26	2.44	-1.604
	F(P)	23.892***	17.649***	-	21.034***	15.281***	-	4.847**	12.429***	-	13.381***	8.472***	-
	scheffe 사후검증	a>d,e b>d,e c>d,e	a>c,d, e b>d,e c>e	-	a>d,e b>d,e c>d,e	a>d,e e<b,c, d	-	a>d,e	a>d,e e<b,c, d	-	a>d,e b>d,e c>d,e	a>d,e b>d,e	-
혼인 상태	미혼	2.61	2.81	-2.933**	2.66	2.80	-1.642	2.24	2.73	-5.676***	2.93	2.89	0.426
	기혼	2.30	2.41	-2.913**	2.36	2.35	0.120	1.96	2.35	-9.311***	2.60	2.51	1.802
	별거 이혼	2.60	2.73	-0.883	2.65	2.79	-0.689	2.23	2.52	-1.580	2.92	2.88	0.253
	사별	2.13	2.28	-1.099	2.12	2.18	-0.371	1.96	2.16	-1.158	2.31	2.51	-1.030
	F(P)	12.994***	25.728***	-	6.292***	23.262***	-	6.035***	15.730***	-	8.472***	12.855***	-
	scheffe 사후검증	a>b,d c>d	a>b,d c>b,d	-	a>b,d	a>b,d c>b,d	-	a>b	a>b,d	-	a>b,d c>d	a>b,d	-
학력	중학교 이하	2.08	2.31	-3.535***	2.02	2.21	-2.351*	1.84	2.24	-5.323***	2.38	2.48	-1.070
	고등학교	2.38	2.47	-1.967	2.47	2.45	0.278	1.99	2.40	-7.022***	2.67	2.57	1.538
	전문대 및 대학	2.52	2.60	-1.732	2.59	2.57	0.366	2.15	2.54	-6.451***	2.83	2.70	2.130*
	대학원 이상	2.15	2.64	-1.808	2.33	2.62	-0.966	2.00	2.54	-1.527	2.11	2.77	-1.868
	F(P)	23.312***	10.100***	-	17.683***	9.875***	-	6.895***	7.217***	-	13.042***	3.940***	-
	scheffe 사후검증	a<b,c b<c	a<b,c	-	a<b,c	a<b,c	-	a<c	a<c	-	a<b,c	a<c	-

p<0.001***, p<0.01**, p<0.05*

3. 부산지역 자녀가치관 변화 및 요인

부산지역 자녀가치관의 변화는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인 자녀 가치관은 2008년 2.19점, 2018년 2.4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문항 모두 2008년에 비해 2018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특히,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 1.92점에서 2018년 2.31점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18년 모두 연령과 혼인상태, 학력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2008년의 경우 별거 및 이혼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8년의 경우 미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사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및 대학이 가장 높고 중학교 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에 미치는 요인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2008년 1.99점에서 2018년 2.44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2008년 2.11점에서 2018년 2.36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별거 및 이혼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008년 2.17점에서 2018년 2.43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08년과 2018년 10년간 50대와 기혼,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자녀가치관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자녀가치관 변화 및 요인

(단위 : 점)

구분		자녀가치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전체		2.19	2.44	-9.270 ***	2.15	2.37	-5.844 ***	1.92	2.31	-10.221 ***	2.49	2.64	-3.759 ***
연령	20대 이하	2.43	2.75	-4.828 ***	2.40	2.75	-3.529 ***	2.03	2.61	-6.449 ***	2.85	2.87	-0.276
	30대	2.29	2.59	-4.076 ***	2.24	2.51	-2.634 ***	1.97	2.45	-4.908 ***	2.66	2.79	-1.307
	40대	2.21	2.45	-4.764 ***	2.11	2.36	-3.118 **	1.99	2.31	-4.250 ***	2.53	2.67	-1.955
	50대	1.99	2.44	-8.526 ***	2.01	2.37	-4.773 ***	1.74	2.31	-7.176 ***	2.22	2.65	-5.189 ***
	60대 이상	1.93	2.19	-3.808 ***	1.91	2.11	-2.068 *	1.86	2.06	-2.179 *	2.02	2.42	-3.890 ***
	F(P)	17.621 ***	26.776 ***	-	6.951 ***	15.767 ***	-	4.015 **	12.456 ***	-	19.342 ***	9.413 ***	-
	scheffe 사후검증	a>c,d, e b>d,e c>d,e	a>c,d, e e<b,c, d	-	a>c,d, e b>e	a>c,d, e e<b,c, d	-	a>d c>d	a>c,d, e e<b,c, d	-	a>c,d, e b>d,e c>d,e	e< a,b,c,d	-
혼인 상태	미혼	2.49	2.75	-4.313 ***	2.46	2.73	-2.975 **	2.13	2.64	-5.971 ***	2.88	2.88	0.092
	기혼	2.11	2.36	-7.959 ***	2.08	2.28	-4.576 ***	1.86	2.21	-8.056 ***	2.40	2.58	-3.858 ***
	별거 이혼	2.59	2.53	0.463	2.31	2.36	-0.264	2.31	2.39	-0.417	3.15	2.82	1.604
	사별	1.90	2.24	-2.744 **	1.96	2.16	-1.285	1.85	2.16	-1.901	1.88	2.40	-2.906 **
	F(P)	26.639 ***	30.070 ***	-	9.783 ***	16.880 ***	-	7.980 ***	16.708 ***	-	24.985 ***	9.989 ***	-
	scheffe 사후검증	a>b,d c>b,d	a>b,d	-	a>b,d	a>b,d	-	a>b c>b	a>b,d	-	a>b,d b>d c>b,d	a>b,d	-
학력	중학교 이하	1.96	2.21	-4.569 ***	1.98	2.12	-1.932	1.73	2.08	-4.851 ***	2.17	2.42	-3.065 **
	고등 학교	2.17	2.43	-5.672 ***	2.07	2.36	-4.271 ***	1.96	2.26	-4.635 ***	2.47	2.67	-2.962 **
	전문대 및 대학	2.35	2.56	-5.260 ***	2.31	2.51	-3.239 **	2.02	2.45	-7.393 ***	2.72	2.73	-0.111
	대학원 이상	2.11	2.54	-1.468	2.33	2.38	-0.136	1.67	2.38	-2.225 *	2.33	2.85	-1.547
	F(P)	19.982 ***	19.330 ***	-	8.354 ***	10.528 ***	-	6.477 ***	10.382 ***	-	17.550 ***	7.564 ***	-
	scheffe 사후검증	a<b,c b<c	a<b,c b<c	-	a<c b<c	a<b,c	-	a<b,c c>a,b	-	a<b,c b<c	a<b,c	-	

p<0.001***, p<0.01**, p<0.05*

4. 부산지역 부부생활 가치관 변화 및 요인

부산지역 부부생활 가치관의 변화는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인 부부생활 가치관은 2008년 2.62점에서 2018년 2.46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문항 모두 2008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 3.19점에서 2018년 2.78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는 문항 역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부부생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연령만이, 2018년의 경우 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부부생활 가치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0대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와 달리 50대가 부부생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부부생활 가치관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가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역시 다른 분야와 달리 중학교 이하에서 보다 개방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 가치관에 미치는 요인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2008년 2.74점에서 2018년 2.47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2008년 2.62점에서 2018년 2.47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경우 2008년 2.60점에서 2018년 2.43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부생활 가치관 감소의 경우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는 문항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부부생활 가치관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생활 가치관의 개방성이나 인식이 낮아졌다고 보기보다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부부생활 가치관 변화 및 요인

(단위 : 점)

구분		부부생활 가치관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전체		2.62	2.46	8.154***	3.19	2.78	13.184***	2.08	2.05	0.591	2.61	2.56	1.057
연령	20대 이하	2.61	2.44	3.423**	3.31	2.87	6.333***	2.43	2.29	1.197	2.09	2.16	-0.614
	30대	2.57	2.41	3.336**	3.21	2.94	3.569***	2.07	2.15	-0.830	2.42	2.15	2.585*
	40대	2.59	2.45	3.238**	3.10	2.72	5.568***	2.08	2.04	0.499	2.59	2.58	0.182
	50대	2.74	2.47	6.462***	3.27	2.74	8.374***	1.93	2.00	-0.971	3.01	2.68	4.260***
	60대 이상	2.65	2.51	3.166**	3.03	2.75	3.297**	1.89	1.93	-0.388	3.02	2.84	1.974*
	F(P)	4.858**	1.386	-	4.269**	2.691*	-	8.360***	5.304***	-	33.900***	26.776***	-
	scheffe 사후검증	b<d c<d	-	-	-	-	-	a>b,c,d,e	a>d,e	-	a<b,c,d,e b<d,e c<d,e	a<c,d,e b<c,d,e c<e	-
혼인 상태	미혼	2.59	2.42	3.849***	3.29	2.82	7.388***	2.44	2.28	1.633	2.04	2.16	-1.195
	기혼	2.62	2.47	6.511***	3.17	2.76	10.728***	1.99	2.00	-0.217	2.71	2.66	1.199
	별거 이혼	2.60	2.52	0.865	3.15	2.88	1.822	2.19	1.97	1.151	2.46	2.70	-1.006
	사별	2.76	2.49	3.535**	3.23	2.80	3.325**	1.96	1.85	0.618	3.08	2.82	1.708
	F(P)	1.325	1.296	-	1.569	0.789	-	12.210***	7.500***	-	30.481***	20.830***	-
	scheffe 사후검증	-	-	-	-	-	-	a>b,d	a>b,d	-	a<b,d c<d	a<b,c,d	-
학력	중학교 이하	2.69	2.53	4.664***	3.18	2.77	6.893***	1.88	1.97	-1.228	3.01	2.86	2.086*
	고등학교	2.61	2.46	3.925***	3.15	2.78	6.701***	2.07	2.03	0.623	2.60	2.58	0.308
	전문대 및 대학	2.60	2.43	5.424***	3.23	2.77	9.172***	2.20	2.12	1.292	2.37	2.41	-0.609
	대학원 이상	2.56	2.38	1.335	3.33	3.08	1.192	2.00	1.77	0.589	2.33	2.31	0.065
	F(P)	2.178	3.225*	-	1.071	1.097	-	6.348***	2.287	-	25.354***	13.298***	-
	scheffe 사후검증	-	a>c	-	-	-	-	a<c	-	-	a<b,c b<c	a>b,c	-

p<0.001***, p<0.01**, p<0.05*

5. 부산지역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변화 및 요인

부산지역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6개 문항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 문항의 경우 일부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증가한 반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18년 모두 연령과 학력,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역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가장 높고 사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2008년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은 반면, 2018년의 경우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에 미치는 요인의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008년 2.36점에서 2018년 2.54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0대 이하에서 2008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20대 이하의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8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대 이하 청년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2008년 2.77점에서 2018년 2.68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5개 문항 모두에서 2008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이하 청년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 현상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경우 2008년 2.42점에서 2018년 2.5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 대학원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집안 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2008년에 비해 2018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가족 내 성역할이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등 젊은 층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 악화와 젠더 갈등이 성역할에 대한 청년들의 보수적 인식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표 6〉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변화 및 요인

(단위 : 점)

구분		가족 내 성역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전체		2.56	2.58	-0.985	2.36	2.54	-4.352***	2.53	2.49	0.886	2.52	2.54	-0.550
연령	20대 이하	2.78	2.69	1.911	2.73	2.66	0.715	2.48	2.31	1.658	2.70	2.58	1.214
	30대	2.60	2.60	0.068	2.39	2.55	-1.493	2.54	2.45	0.8778	2.48	2.41	0.705
	40대	2.56	2.57	-0.321	2.37	2.55	-2.158*	2.60	2.58	0.314	2.49	2.59	-1.329
	50대	2.47	2.56	-2.621**	2.19	2.45	-3.149**	2.41	2.55	-1.692	2.55	2.54	0.112
	60대 이상	2.36	2.54	-4.234***	2.09	2.55	-4.241***	2.57	2.48	0.774	2.37	2.53	-1.434
	F(P)	21.672***	4.265*	-	7.473***	1.923	-	1.173*	3.244*	-	2.142*	0.973	-
	scheffe 사후검증	a>b,c,d,e b>d,e c>e	a>d,e	-	a>b,c,d,e	-	-	-	a<c	-	-	-	-
혼인 상태	미혼	2.77	2.68	1.973*	2.73	2.63	1.093	2.50	2.36	1.523	2.69	2.56	1.466
	기혼	2.52	2.56	-1.674	2.29	2.53	-4.921***	2.54	2.52	0.560	2.49	2.53	-0.825
	별거 이혼	2.58	2.57	0.081	2.46	2.42	0.178	2.50	2.67	-0.780	2.50	2.70	-0.903
	사별	2.44	2.50	-0.813	2.19	2.45	-1.449	2.31	2.53	-1.169	2.35	2.49	-0.906
	F(P)	18.936***	7.605***	-	8.219***	1.647	-	0.726	3.024*	-	2.366	0.692	-
	scheffe 사후검증	a>b,d	a>b,d	-	a>b	-	-	-	-	-	-	-	-

구분		가족 내 성역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학력	중학교 이하	2.42	2.54	-3.680***	2.17	2.53	-4.213***	2.36	2.50	-1.653	2.37	2.52	-1.792
	고등학교	2.55	2.56	-0.140	2.30	2.50	-2.840**	2.65	2.54	1.676	2.52	2.52	0.005
	전문대 및 대학	2.67	2.62	1.785	2.52	2.57	-0.788	2.54	2.45	1.407	2.61	2.57	0.795
	대학원 이상	2.46	2.65	-0.932	2.89	2.62	0.815	1.67	2.46	-2.446*	2.44	2.54	-0.245
	F(P)	21.152***	3.374*	-	6.967***	0.592	-	7.427***	0.793	-	3.198***	0.258	-
	scheffe 사후검증	a<b, c b<c	-	-	a<b b<c	-	-	a<b b>d c>d	-	-	a<c	-	-
구분		가족 내 성역할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전체		2.56	2.58	-0.985	3.03	2.86	4.760***	2.19	2.43	-6.075***	2.75	2.62	3.186**
연령	20대 이하	2.78	2.69	1.911	3.20	2.92	3.064**	2.51	2.81	-2.845**	3.06	2.83	2.345*
	30대	2.60	2.60	0.068	3.03	3.00	0.385	2.30	2.49	-1.767	2.84	2.68	1.593
	40대	2.56	2.57	-0.321	3.09	2.81	3.812***	2.07	2.33	-3.330**	2.76	2.58	2.141*
	50대	2.47	2.56	-2.621**	2.91	2.83	1.082	2.08	2.41	-4.310***	2.65	2.56	1.074
	60대 이상	2.36	2.54	-4.234***	2.89	2.85	0.439	2.03	2.29	-2.641**	2.22	2.56	-3.275***
	F(P)	21.672***	4.265*	-	3.630**	1.415	-	8.377***	11.350***	-	13.949***	3.306*	-
	scheffe 사후검증	a>b, c, d, e b>d, e c>e	a>d, e	-	a>d	-	-	a>c, d, e a>c, d, e	-	-	a>c, d, e c>e d>e	a>d, e	-
혼인 상태	미혼	2.77	2.68	1.973*	3.12	2.92	2.326	2.57	2.80	-2.495*	3.04	2.84	2.354*
	기혼	2.52	2.56	-1.674	3.01	2.85	3.693***	2.12	2.34	-4.911***	2.69	2.57	2.481*
	별거 이혼	2.58	2.57	0.081	3.04	2.82	1.160	2.27	2.27	-0.019	2.69	2.55	0.728
	사별	2.44	2.50	-0.813	3.08	2.76	2.013*	2.04	2.33	-1.726	2.65	2.44	1.133
	F(P)	18.936***	7.605***	-	0.690	0.908	-	11.969***	17.865***	-	6.340***	6.251***	-
	scheffe 사후검증	a>b, d	a>b, d	-	-	-	-	a>b, d	a>b, c, d	-	a>b	a>b, d	-

구분		가족 내 성역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2008	2018	T(p)
학력	중학교 이하	2.42	2.54	-3.680***	2.98	2.84	1.756	2.09	2.30	-2.840**	2.53	2.52	0.168
	고등학교	2.55	2.56	-0.140	3.03	2.81	3.510***	2.09	2.38	-4.197***	2.72	2.59	1.825
	전문대 및 대학	2.67	2.62	1.785	3.09	2.90	3.394**	2.36	2.54	-2.909**	2.90	2.69	3.463**
	대학원 이상	2.46	2.65	-0.932	2.56	3.00	-1.215	2.11	2.46	-0.849	3.11	2.85	0.770
	F(P)	21.152***	3.374*	-	2.422	1.167	-	6.925***	4.809**	-	8.948***	2.364	-
	scheffe 사후검증	a<b,c b<c	-	-	-	-	-	a<c b<c	a<c	-	a<c b<c	-	-

p<0.001***, p<0.01**, p<0.05*

V. 논의 및 결론

우리사회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족의 변화는 규모의 축소, 세대구성의 단순화, 형태의 다양화 등 외형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동질적으로 유지되었던 결혼과 자녀, 돌봄 등에 관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기준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부산은 가족분야 62.4점, 전체 11위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부산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고 가치관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아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가족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도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제7차 여성가족패널조사와 2008년 제2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자녀 가치관, 부부생활 가치관, 가족 내 성역할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연령, 혼인상태,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 결혼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약화되어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결혼에 대한 당위성, 집안배경 등에 대한 보수적 인식은 10년 동안 약화되어 결혼 가치관에 대한 개방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50대와 미혼,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연령과 혼인상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20대 이하, 별거 및 이혼,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한 당위성과 의무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여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 자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낮아졌고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특히, 50대와 기혼,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부부생활에 관한 가치관은 2008년의 경우 연령만이, 2018년의 경우 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과는 달리 부부생활 가치관의 경우 50대가 20대 이하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이하가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 보다 개방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에서의 성적 만족도, 이성친구의 필요성, 이혼 등 부부생활에 대한 인식은 2008년에 비해 2018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는 문항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부부생활 가치관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생활 가치관의 개방성이나 인식이 낮아졌다고 보기보다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은 연령과 혼인상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은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성평등하고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개 문항의 평균인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은 2008년과 2018년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문항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

상적이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증가한 반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은 60대 이상의 경우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목할 부분은 20대 이하에서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8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 지속적인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젠더 갈등이 성역할에 대한 청년들의 보수적 인식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산지역의 가족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 혼인상태, 학력이 작용했고 전반적으로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이며 보다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생활 가치관에서는 60대 이상, 기혼, 중학교 이하 학력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2008년과 2018년의 변화를 통해,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의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 현상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층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가 우리사회 지속적인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젠더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부산만의 문제인지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부산은 정치적 보수성이 강하고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성평등 가치관이 낮은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인구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는 부산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문화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따라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 및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부산지역 가족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모색할 것인지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률·임성옥(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혈통적 국민정체성이 다문화 배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 제2호. 91-120.
- 강유진(2016). “한국사회 성인의 가족가치관 실태와 영향요인: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 부양관을 중심으로”. *충신대논총*. 제36권. 231-256.
- 김민지·전미경(2016). “‘가정의 달’ 신문 기사에 나타난 가족가치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2호. 29-50.
- 김승권(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Focus*. 제246권. 1-8.
- 김혜정(2019).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족”, *여성학강의 일곱 번째 이야기*.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149-170.
- 류연규·김영미(2013). “복지국가의 젠더 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012권 제11호. 166-191.
- 배문조·박세정(2013). “대학생의 효에 대한 인식과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275-285.
- 배혜원(2017).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251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6-100.
- 염주희·정승은·주영선·정은영(2012). *한국사회 결혼 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은·추주희(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제1호. 1217-1232.
- 원숙연·김예슬(2017).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 모성 및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7권 제2호. 269-311.
- 이정운·김주현(2020).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4권 제1호. 29-62.
- 정순돌·배은경·최혜지(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 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2호. 5-23.
- 정아름(2018).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147-174.

Abstract

The Change and the Effect Factors of Family Values in Busan

Kim Hye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at the values of the family, how they are changing,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 formation of these values in Busan.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Women and Family Panel Survey” of the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over the past 10 years using the 7th survey in 2018 and the 2nd survey in 2008 to analyze changes in family values. The family values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marriage values, children’s values, marital life values, and gender roles within the family. The family values in the Busan are generally changing in a non-traditional direction, and in a more open and gender equal direction. In addition,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al background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family values. Overall, perceptions of people under their 20s, unmarried, voc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or higher are relatively unconventional and more gender equal. However, in terms of the values of marital life, the perception of those in their 60s or older, married, and under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rough the changes in 2008 and 2018, it was discovered that the stereotypes of gender roles within the family were reinforced in those under the twenties, unmarried, and those with a vocational college or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 Whether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continuous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our society and gender conflict or problem only in Busan needs to be explored more closely through follow-up studi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changes in family valu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awareness of family diversity and gender roles within the family, and to discuss how to connect and explore family policies and systems in Busan.

Keywords : Family values, Marriage values, Children’s values,
Gender role, Effect Factors, Family, Busan.

* Research Fellow,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